

이남기 작가 '나의 시선이 머물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4월 26일까지 개인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이남기 작가의 개인전 '나의 시선이 머물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만의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물과 여행지의 풍경을 담은 회화 26여 점을 선보인다.

이남기 작가는 대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순화해 스케치하고 풍부한 원색을 자유롭게 조합해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작가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정밀한 작업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을 있는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응원 속에서 어릴 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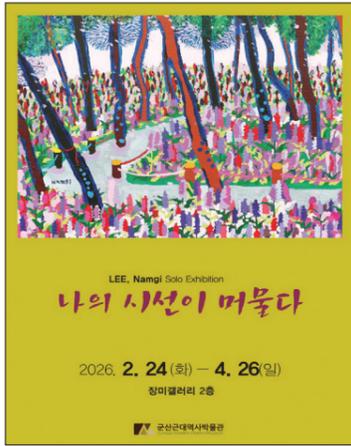
터 꿈꿔온 화가의 꿈을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펼쳐 보인다.

이 작가의 어머니 최정숙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견된 작은 재능이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때 그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가는 2015년 군산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장애 아동 공모전에서 금상과 전북일보 사장상, 특별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작가만의 순수한 영감(靈感)으로 풀어낸 회화를 통해 관람객들이 따뜻한 위로와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이남기 작가 개인전 '나의 시선이 머물다' 포스터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30)

저놈 때문이야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남준은 맥이 빠져 총기수입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 저 멀리에서 명희가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남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유격대는 유격대원들의 사상학습을 담당하는 부중대장이 존재했다. 수시로 시간이 내면 유격대원들에게 전투의 당위성과 유격대원의 사명, 조선인민공화국의 우월성을 학습시켰다.

부중대장은 남준을 불렀다. 박창수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고 남준은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창유격대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롱 날 일이었음으로 사실대로 말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나를 뜻했다.

"좋아, 강 동무. 그렇다면 말이야. 오늘 저녁에 자비관 시간에 강 동무의 의지를 여러 동무들 앞에서 말할 수 있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준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박또박 큰소리로 대답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까.

박창수는 명희를 찾아왔다. 박창수는 누구보다도 남준과 명희 사이를 잘 안다. 국민학교 때부터 남준과 명희는 붙어 다녔으며 중학교 역시 당골래 자식들끼리 뭉치는 걸 두 눈으로 봤고, 더욱이 마을에서 굿을 하러 갈 때면 둘이 죽이 맞아서 다닌다는 걸 봐왔던 박창수였다.

박창수는 그동안 은근히 명희가 남준과 함께하는 걸 시기해왔는데 그건 일종의 질투심이었다. 겉으로는 당골래 자식이라 놀렸지만 인물이 좋은 명희가 박창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명희, 너도 알고 있었지? 남준이 저 놈이 학도대에 있었다는 걸?"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물론 남준이 학도대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고는 있다.

명희가 눈만 껌벅거리고 있자 박창수는 안달이 나는지 더 바짝 명희에게 다가와 앉았다.

"너, 저 강남준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나쁜 놈인데?"

도대체 박창수가 어떤 식으로 남준을 헐뜯지 말지도 궁금했다.

"지난번에 강용대 그 깃어죽일 놈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죽였어. 너도 나하고 같은 처지잖아. 그런데 생각해보, 왜, 강용대가 우리 황전에 와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야……." 우리 박씨들이 봉전 강씨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명희는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입에 울리지 못하고 눈으로 박창수를 응시하면서 너무 알고 있지 않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너도 모르고 있구나?"

"뭐…… 모른다는 거야?"

박창수는 상체를 바투 명희에게 가까이 하더니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듯 조용히 속삭였다.

"강남준, 저놈 때문이야. 강남준, 저놈 때문에."

명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창수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남준이가 뭐?"

"저놈이 강용대 그놈에게 고지질 한 거라고 강남준 저놈이."

"남준이가 고지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생각해보. 봉원에서 강씨 중에 살아 남은 놈은 강남준 저놈밖에 없어. 그런데 저놈이 학도대에서 활동했다는 말이야. 그 뒤로 강용대가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 박씨들을 죽였어. 딱, 답이 나오지 않나? 강남준 저놈밖에 없다고."

인과관계가 너무 험령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명희의 이마를 짐을 치듯 덩어어, 찼다.

명희의 두 눈이 중심을 잃고 허둥대면서 왔다 갔다 했다. 박창수는 더 바짝 명희를 조여왔다.

"저놈이 우리 박씨들이 봉림 강씨들을 죽였다고 강용대에게 찔렀던 말이야."

박창수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박대우 일행이 봉림을 습격할 때 명희는 남준과 함께 했다. 둘은 박대우 일행이 봉림 강씨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꿈의 무용단 in 완주 · 꿈의 극단 완주' 단원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꿈의 극단 완주'의 2026 단원을 모집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완주군 및 인근 거주 초등 1~6학년 아동(완주군 거주 우선)을 대상으로 하며, 각 30명(사회적 배려계층 40% 우대)을 선발한다.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현대무용을 바탕으로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나만의 움직임 찾아 친구들과 연결해 표현하는 무용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꿈의 극단 완주'는 2026년은 '너, 그리고 관계'를 주제로 사람 뿐 아니라 자연·반려동물·물건·취향 등 '나와 연결된 존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변화를 대본, 장면,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연극 기반 예술교육이다.

모집은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정원을 초과할 경우 2차 인터뷰(대면 또는 인터뷰 영상 제출)를 통해 참여 동기와 의지를 확인한다. 인터뷰에는 보호자 동반 참석이 필요하다.

교육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에서 진행되며 '꿈의 극단 완주'는 4월 4일 오후 2~5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4월 11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첫 수업을 시작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 명인 · 명장' 대상자 3월 16일까지 모집

순창군이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년 순창군 명인 · 명장'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공적을 쌓은 인물을 발굴·지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순창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명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공헌을 인정받은 자 △명장: 공예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지역 문화 계승에 기여한 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주민 30명 이상 또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순창에 거주한 사람이다.

또한 전통 기법과 기술을 보존·계승해 온 인물로, 상급 기관에서 동일·유사 분야로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명인·명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결과는 4월 초 발표된다. 선정자는 4월 17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패를 수여받는다.

제출 서류와 세부 요건은 순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3-650-162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정읍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 520명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이번 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2006년생과 2007년생 청년들이다. 신청자에게는 1인당 연 2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를 이용해 국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은 전용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